

## 회원사동정

### 대성전선(주)

#### 베트남 合作工場 증설

**大** 成電線(대표:梁始伯)이 베트남 체신청과 합작투자한 현지법인 「VINA DAESUNG」 케이블사가 지난 '93년 설립 이후 3년여만에 생산케파를 2배 이상 늘리게 됐다.

지난 7월 25일 베트남 하노이市 현지 공장에서 대성전선의 梁始伯사장과 張貞洙부사장, DGPT(베트남체신청)장관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VINA DAESUNG」 증설식에서 이 합작회사는 현재의 대지 3,500평을 4,500평으로, 건물 1,200평을 1,900평으로 각각 늘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나대성」 케이블은 생산규모면에서 연간 銅량기준 1천톤에서 2,400톤으로 확대되 베트남 전체 통신케이블 시장점유율도 현재 25%의 배가 증가된 50%까지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비나대성에 증설된 통신케이블라인은 기존의 CCP 등 단순케이블이 아닌 선진국형 폼스킨(Foam Skin)라인 9대가 증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성전선측이 합작투자한 비나대성은 베트남 현지에서 현재까지 진출한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 중 최고의 성공회사로 평가되고 있는 동시에 매출액도 '93년 20억, '94년 50억, '95년 1백50억 규모로 성장폭이 매년 배가되고 있어 향후 국내업체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모범기업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 대한전선(주)

#### 해외 합작공장 본격 가동

**大** 韓電線(대표:兪彩濬)은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0년대부터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합작법인을 설립, 현재 현지 합작공장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일 먼저 진출한 北京의 「대경통신 전람유한공사」. 총투자액 3천만달러, 자본금 1200만달러, 지분율 55% 참여로 중국 통신건설총공사 등 당해국 6개사와 설립한 이 합작법인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양산체제를 구축케 됐다. 생산능력은 연간 통신케이블 4천톤, 광케이블 3천km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 북경에 이어 같은 해 10월 靑島에 합작 투자한 「청도청대전람유한공사」는 청도전람창 및 홍콩금보도전람유한공사와 총설비투자 규모 3천만달러, 자본금 1180만달러, 지분 55% 참여로 설립되었다. 이 합작공장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을 비롯 알루미늄전선, 절연전선, 고무전선 등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銅 6천톤, Al 2,400톤을 소화해 내고 있다.

대한전선은 또 지난해말 청도전람창 소유지분의 40%까지 인수하면서 경영개선과 최신설비를 도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체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밝은 전망이다. 산동지역의 종합전선업체로 발돋움한 청도청대전람유한공사는 향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판도를 열어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한전선이 3번째로 진출한 해외법인은 印度의 TDT社. 총투자액 1700만달러, 자본금 540만달러 가운데 대한전선 참여지분은 63.5%, 나머지는 인도 Delton케이블 10%, 일본 Tomen社 26.5%로 구성되어 있다.

TDT 3개국 합작사는 수도인 뉴델리로부터 약 90km 떨어진 하리아나주 반월공단에 건설중인 케이블 제조용 銅로트드공장으로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10월부터 상업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약 5만4천톤 규모의 동로트드가 현지생산되는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대한전선은 이같은 해외에 투자한 현지공장들이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인도를 포함한 주변 東南亞 국가 등 후발국들의 전력·통신망 계통화사업에 국제경쟁력 우위 선점체제로 확고히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동사는 최근 환경오염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아 환경사업에도 본격 진출하게 됐다.

동 시스템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의 공해방지·폐수정화장치에 대한 가동유무와 고장현황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시스템은 특히 각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이나 폐수의 상태를 중앙통제방식에 의해 원격으로 점검, 정기적 또는 이상이 있을 시 자동 통보함으로써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

## 회원사동정

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충분한 상업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전기연구소

#### 수평형피로기 개발

**초** 고압 송전선로에 설치되는 각종 금구류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수평형피로기가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소 선로성능기술연구팀(팀장:이형권선임연구원)은 한국전력이 건설예정인 765kV급 송전선로에 설치될 각종 금구류의 기계적 피로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경도정밀과 공동으로 수평형피로기를 제작, 전북 고창의 765kV실증시험장에 설치했다고 지난 8월 7일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수평형으로 개발된 이 피로시험기는 8m거리에 설치 가능하며 최대 60t까지 피로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금구류를 비롯한 각종 전력설비의 피로특성 및 새로운 금속재료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팀장은 이와 관련, "현재 국내시험 검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평형피로시험기는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잖은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구류는 애자 등 송전선로의 철탑에서 송전선을 지지해 주는 장치이며 수평형피로기는 송전선을 인위적으로 수평방향으로 흔들어 금구류 및 송전선이

견디는 정도를 시험하는 장치이다.

### 현대중공업(주)

#### 고능률 자동용접장치 개발

**現** 代重工業은 국내 최초로 용접 토치 28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능률 자동용접장치인 「28전극자동 필렛 용접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대는 이 용접기 2대를 조선 2야드 선각공장에 설치, 용접능률이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용접장치는 선체 중앙부 평면블록의 외판과 보강재 이음부를 필렛방식으로 자동용접하는 시스템으로 1분에 1.2m의 고속용접이 가능하며 용접부와 비용접부에 대한 자동 식별기능, 자체 고장진단기능 등이 있어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장치는 특히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 가스를 자동제거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는 이 장치를 선각공장 전체에 배치키로 하고 추가제작에 들어갔다.

### 한전정보네트웍(주)

#### 전기기사협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 전정보네트웍(대표:최대용)이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대한전기기사협회는 전기기술 분야의 업무확대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회원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기술 및 교육 분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20개 지부와 본부를 연결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정보네트웍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동안 한전종합정보시스템(KIS)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기사협회의 종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PC통신 서비스 망과도 연동,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첨단기술 및 회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정보네트웍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전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외주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LG산전(주)

#### 주차설비사업 제2의 도약 선언

**LG** 産電(代表:李鍾秀)의 주차 설비사업이 오는 2000년 매출목표를 2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세계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들어갔다.

그동안 LG산전은 주차설비 시장점유율의 40%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지켜왔으나,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주차설비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는 2000년까지 총 200억원을

## 회원사동정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주차설비 업체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LG산전은 1단계로 오는 '98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해 엘리베이터방식 주차설비의 신기종과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향후 주차시설이 점차 대형화, 대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부분 및 입출고관리를 위한 주차관제부분의 투자를 위해 신제품개발팀을 운영, 2000년까지는 상용화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용 주차설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선진국의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밀착형 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위해 일본, 북미, 유럽, CIS에 연구소를 설립, 국내의 연구소와 5국 연구체제를 오는 200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며 연구인력 또한 현재의 42명에서 60명으로 약 40%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영업에서는 건물이 설계되는 초기부터 제품의 사양 및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 최적의 주차설비를 제안해 주는 컨설팅활동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으며, A/S부분에서도 서비스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 주요도시의 거점별 서비스망을 현재의 10개에서 오는 2000년까지는 4배를 늘린 4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영업부분에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을 주력시장으로 선정,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오는 '98년 이후에는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 고객의 납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로 했으며, 오는 2000년까지는 중국시장 이외에 동남아지역을 전락시장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해외시장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영업부분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전세계에 10개의 지역본부를 포함하여 17개의 생산법인, 15개의 판매법인, 28개의 지사 등 총 70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폭넓은 영업을 하기로 했으며, 영업방식도 현재의 현지판매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는 2000년까지 300명의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해 해외수출의 매출액을 현재의 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약 8배 증대하기로 했다.

LG산전은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2일 일본의 히다찌조선(日立造船)과 평면왕복식 기종에 대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평면왕복식 주차설비란 미래기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으로 기존제품에서는 불가능한 출입구를 2개 이상 구성할 수 있어 연속적인 입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입출고시간이 40초 이내로 신속하며, 연립 및 다층구성이 용이해 수천대까지 수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종이다.

LG산전은 이번 기술협력을 계기로 기계식 주차설비의 모든 기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주차설비 최고의 업체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제품은 엘리베이터방식의 주차설비로 국내 1800억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7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면왕복식 주차설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금년도 수주를 950억원으로 설정하고 하반기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LG産電이 中國「대련시 개발구 교통관제 시스템 Project」의 국제경쟁입찰에서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업체를 제치고 총 500만달러 규모의 시스템 공급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급업자 선정은 도로교통분야에서 세계적인 대 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북경, 상해 등 주요도시는 물론 대련의 구시가지 교통시스템을 양분하고 있는 등 유리한 입장에 있는 영국의 지멘스(Siemens)社, 일본의 옴론(Omron)社 등과의 1, 2차에 걸친 치열한 기술경합 끝에 얻은 성과로 가 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에서 이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교통관제 분야에 있어 국내업체 최초의 해외진출 사례로 기록될 이번 국제입찰 성공에 따라 LG산전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국 진출은 물론 향후 해외진출의 유리한 교두보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주의 SCAT시스템, 영국의 SCOOT시스템보다 LG산전의 "실시간 교통제어시스템"인 G-ARTS가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LG산전이 한국내 선두주자로서 교통관제 시스템에 관한 한 최대의 공급경험이 있다는 것이 심사에서 높이 평가되어 최종 선정되었다.